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본 북한 서정시와 문학교육*

김미혜**

<차 례>

- I. 문제제기
- II. 다문화 교육과 문학교육의 접점으로서의 북한 문학
- III. 문학 교과서의 북한 문학 수용 양상
- IV. 북한 서정시의 다문화적 이해
- V. 맺으며—연구의 의의와 한계

I. 문제제기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는 한국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빠른 속도로 다문화적 성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 하에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어교육 연구자들도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로 대표되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나 다민족·다인종 가정에 속한 아동들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41회 학술발표대회(2008. 12.)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 주신 민재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청주교육대학교 전임강사, antikka@cje.ac.kr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 내 소수자 집단과 주류 사회의 상호통합을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 교육이라기보다는 소수자의 주류 사회 편입을 돕기 위한 교육적 처방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보이는 연구물이 없지는 않다.¹⁾ 그러나 대체로 한국인들이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할 때,²⁾ 사회 내 소수자들의 적응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인들 자신이 다문화 사회 내에서 소수자 집단에 대해 관용적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탐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를 경험했고 다문화 교육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들의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1)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고, (2) 학생들에게 문화적·민족적·언어적 대안을 가르치며, (3)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 그리고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고, (4) 소수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고, (5) 학생들이 전지구적이고 평평한(flat)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1) 예컨대 최현은, 한국여성개발원이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조사”라는 제목으로 한국 Gallup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들의 국민정체성 인식에서 혈통적 요인에 비해 정치적-법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보다 앞선 1995년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혈통주의적 경향은 일본·필리핀·폴란드·아일랜드·남아프리카인들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최근 들어 한국인의 혈통주의적 정체성이 약화되고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문화적 다원주의 경향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자세한 사항은 최현, 『한국인의 다문화 시민존집(multicultural citizenship) :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7을 참조할 수 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OERD)’는 2007년 8월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와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고, (6)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공동체, 국가적 시민 공동체, 지역 문화, 그리고 전지구적 공동체에서 제구실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물론 한국 사회가 이러한 다문화 교육 패러다임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 교육은 홍익인간을 기치로 하여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고수해 왔고, 분단 상황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단번에 포기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이념은 성찰적 민족주의와 국가적 다문화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⁴⁾는 귀 기울일 만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고, 다문화 교육과 문학교육의 접점에서 북한의 서정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 문학교육에서는, 북한 문학이 주체 사상에 경도되어 선전과 선동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다는 논리로 북한의 문학 작품을 우리의 그것과 차별화해 왔다. 실제 작품을 학생들이 접할 기회를 주기보다는 북한 문학을 바라보는 단일한 시각만을 가르쳐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시단에서도 서정성에 대한 지향이 있어 왔고, 특히 1990년대 들어 북한에서는 도식성을 벗어나 개인의 일상에서 우러나는 소박한 서정을 그려내는 서정시가 다수 창작되고 있다. 북한의 서정시는 북한 문학 내에서는 주변부적인 위치에 놓이지만, 남북의 이질성을 강화하는 여타의 시 작품들에 비해 남한의 학습자에게 ‘차이’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의 시작점으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3) James A. Banks,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E, 모경환 외 옮김,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08, pp.2~8.

4) 양영자,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이화여대 박사, 2008.

II. 다문화 교육과 문학교육의 접점으로서의 북한 문학

미국의 다문화 교육은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촉발되었으나 이후 점차 인종, 민족, 성, 사회 계층, 언어와 장애 문제와 관련된 학교 개혁 운동으로 확장되어 왔다.⁵⁾ 다문화 교육의 등장에는 1965년 이민법 제정 이후 인구 대비 인종적 유색인(ethnic group of color)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미국 사회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이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사회 내부의 다양한 차이들을 인식하고, 공통의 문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교육의 정치철학적 배경이 되고 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미국 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지배 문화의 억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미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성적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과 태도를 배양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⁶⁾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인종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다문화 교육으로 보는 관점에 치우쳐 있다.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일컫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문화 교육을 귀국자 자녀의 적응 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 등과 동일시하는 것도 올바른 이해는 아니지만, 다문화 교육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개념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이주 노동자의 자녀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다문화 교육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앞 다투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5) 미국 내 다문화 교육의 사적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장인실,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을 참조할 것.

6) 정상준,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미국학』 제24집,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01, p.77.

지원에 나르고 있는 정부 부처나 지방 자치 단체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시각도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이주 노동자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온 재외동포라는 점에서 인종과 민족만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고, 새터민의 한국 사회 적응이나 한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의 문제도 다문화 교육이 포괄해야 한다.

교육의 대상 또한 소수자 집단뿐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 전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이란 인종이나 민족뿐 아니라 “종교, 문화, 언어, 민족의 다양성과 관련된 교육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이 제공하는 교육의 기능성과 기회,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⁷⁾ 것이다. 학생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속 집단의 언어를 학교에서 구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Banks의 주장⁸⁾은 다문화 교육의 최종적인 도달점이 소수자의 다수 문화로의 포섭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에 있음을 말해준다. 다문화 교육이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함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수자 집단에 대한 다수의 이해 없이 그러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다문화교육’을 35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은 다문화 교육에 있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인종, 성, 계층 등의 범주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실제로는 다문화주의보다는 다인종주의라는 용어가 현실을 더 제대로 반영한다⁹⁾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 인종이나 민족 간의 갈등이 여타의 갈등에 비해 위험성을 지니기 때문

7) 윤여탁, 『다문화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 : 현실과 방법』, 2008년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다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8, pp.23 ~ 24.

8) James A. Banks, 모경환 외 역, 앞의 책, p.36.

9) 정상준, 앞의 글, p.88.

이다. 다문화 교육에 있어 ‘언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을 사고하는 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소수의 언어나 문화를 끌어안으려는 노력 없이 ‘우리’의 언어와 문화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다문화 교육으로 오해하는 데 있을 것이다.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의 출발점은 소수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Banks는 다문화 교육의 네 가지 정향으로 기여적 접근법(contribution approach), 부가적 접근법(additive approach), 변혁적 접근법(transformation approach), 의사 결정 및 사회적 행동 접근법(decision-making and social action approach)을 구분해 설명한다. 기여적 접근법은 영웅, 공휴일, 개별적인 문화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부가적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구조나 목적, 특징은 변화시키지 않고 문화와 관련된 내용, 개념, 주제를 교육과정에 덧붙이는 것이다. 변혁적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기준, 패러다임, 기본적인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관점에서 개념, 이슈, 주제와 문제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끝으로 의사 결정 및 사회적 행동 접근법은 학생들이 의사 결정을 내리고, 학습한 개념, 문제, 주제들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시민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혁적 교육과정을 확장하는 것이다.¹⁰⁾ 현재 우리의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볼 때 교과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부가적 접근에 머물러 있으나 총론 수준에서는 변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내의 다문화교육에서도 기여적 접근이나 부가적 접근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구조 변화를 요구하는 변혁적 접근은 쉽지 않은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권 내 문학교육은 다문화 교육과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은 부가적 접근 수준에서 소수자의 문화를 대변하는 문학 작품을 수용함으로써 다수자들에게 ‘차이’를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

10) James A. Banks, 모경환 외 역, 앞의 책, pp.69~70.

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수자와의 문화적 거리를 좁히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함으로써 다수자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적으로 탐색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아래 인용문의 필자는 북한시를 한 편 예로 들며 문학교육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학습자의 사고를 지배하고 생활을 규정하는 요소로서의 문화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시(오영재의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인용자)는 대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준다. 조국을 모든 생각의 뿌리로 삼고, 조국이 모든 목표의 최상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낯익지 않다. 개인의 삶보다는 조국을 위하여 삶을 바치는 것이 더욱 숭고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강조되는 시의 구절 구절에서 낯선 삶의 모습들을 보게도 된다.¹¹⁾

이어서 김대행은 독자가 이 시를 읽고 이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작품이 생산된 문화적 맥락의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가 정치적 억압 때문에 “마지 못해서”, 자신의 본의와 무관하게 “가식적으로” 시를 썼으리라 생각한다면 독자는 작품 속에 담긴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문화적 이질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게 된다. 작품이 생산된 문화 속에서는 조국을 개인의 삶보다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겠지만 시인과 같은 문화권에 속한 독자에게는 이 시에 대한 ‘서정적 체험’¹²⁾이

11) 김대행, 『문학교육 뜯짜기』, 역락, 2000, pp.188~189.

사랑스런 처녀야/ 조국은 무던히도 귀중한 그 무엇인가를 너에게 많이도 주고 싶다/ 더 즐겁고 더 유쾌한 회관과 구락부의 밤을/ 그리고 더 아름답고 고운 손을 너에게 주고 싶다// 전야를 달리는 제초기 위에서/ 곱게 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네가 불러보는……. 사랑의 노래를 조국은 듣고 싶다//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조국은 안고/ 어느 농기계 중대의 창안자와도 밤을 밝히며/ 겨우내 벗지 않는 너의 누빈 솜저고리와/ 무지개빛 머리수건을 생각한다./ 아름답다.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는 아름다워라// 네가 손으로 하던 일들이/ 모두 기계로 대신하게 될 때/ 더 좋은 날과 더 좋은 해들이 너를 맞이주고/ 너를 안고 조국이 달려가는 미래의 락원에서/ 너는 더 행복한 화원을 가꾸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꽃을 너에 비기며/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노래를 너에게 불러줄 것이다.

오영재,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 전문.

12)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 2007.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에 대해 남한의 독자가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질감을, 남한의 시를 읽는 북한의 독자가 느낄 수 있다. 이 시는 북한의 문학적 전통 속에서, 시 장르의 표현과 이해의 관습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없는 이해를 지향한다고 할 때 문학교육이 그러한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길은 소수자 집단의 문학을 편견 없이 그들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긍정을 끌어내는 것이다. 미국 내에는 주류 문학과 함께 미국 흑인 문학(African American Literature), 미국 원주민 문학(Native American Literature),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스페인어로 쓴 치카노 문학(Chicano Literature) 등 인종적·언어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문학 작품이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정전 논쟁을 거쳐 미국 흑인 문학은 아프리카 중심주의(Afro-centrism)라는 역비판을 받을 만큼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우리 문학은 오히려 성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룬 문학 작품에 대한 정전 논의를 먼저 시작했고, 한국 사회에서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두고 ‘선택’을 할 만한 작품군(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인종이나 민족적 차이는 없지만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소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새터민들의 창작물도 미미한 수준이다. 탈북 시인이 북한의 참상을 담아 펴낸 시집¹³⁾이 한 권 있을 뿐 새터민의 한국에서의 삶을 그들의 목소리로 다룬 문학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의 문학적 성과는 공식적으로 논의할 만한 것이 없다. 한국어가 아닌 그들 자신의 모국어로 쓰인 작품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에서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들의 삶을 그들의 목소리로 그려낸 문학적 성과가 축적되면 이에 대해서도 문학교육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국내의 소수자 문학이 아니라 북한 문학을 논의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새터민의 소속 문화였던

13) 장진성,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조감제닷컴, 2008.

북한 문학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이해하기 위한 제재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북한 문학이 다문화적 체험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북한에서의 삶과 정서를 형상화한 북한 문학은 물리적으로 국경 바깥에 있고 독자들로 하여금 어느 문학 작품보다 강한 ‘이질감’을 느끼게 하지만, 사실상 민족 문학의 범주 바깥으로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다문화적 갈등을 체험해 보기에 좋은 제재이다. 가장 가까운 듯하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지는 북한 문학은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타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사회의 주류 문화에 대해 성찰적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독자들이 북한 문학에 대해 느끼는 그 ‘이질감’ 자체가 문학에 대한 ‘이념적 편향’을 작품에 대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Ⅲ. 문학 교과서의 북한 문학 수용 양상

이 장에서는 현행 18종 문학 교과서에서 북한 문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문학교육은 북한 문학의 교육적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통일 이후 우리 문학사에 ‘포섭’되어야 할 낮은 수준의 문학으로 이해하거나 언급 자체를 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언어나 문학에 대한 교육은,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는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문학과 관련해서는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의 교육 내용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4) 문학의 가치와 태도

(다) 문학에 대한 태도

- ① 문학 활동을 하면서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 ② 통일 문학, 세계 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가치를 찾고 계승, 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¹⁴⁾

이는 한국 문학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 문학과 세계 문학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한국 문학을 보편 문학의 틀 속에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관계’를 이해하는 데로 나아가갈 것을 지향하는 세계 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양 문학 위주의 텍스트 선정 문제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¹⁵⁾

문학 교과서의 북한 문학 수용 양상을 살펴보면,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18종 문학 교과서 상당수는 해방 이후 우리 문학사를 기술하면서 분단과 함께 북한 문학이 우리 문학사에서 분리되었음을 언급하는 정도로 소략하게 북한 문학을 다루고 있다. 통일 이후의 우리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면서 북한 문학의 문화적 특수성을 끌어안으려는 관점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래의 인용문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라는 제목의 대단원에 수록된 내용이다. 이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북한 문학과 남한 문학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단절’이 아니라는 점, 북한 문학도 한국 문학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다소 다른 측면에서 문학을 평가하고 계승하면서 창작해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문학관은 ‘자기 인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게 문학 예술을 창조하여 자기 혁명과 자기 나라 인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무하는 문학 예술을 건설하는’ 이른바 주체 문학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우리가 문학을 예술이나 인문 활동으로 보는 데 비해, 북한은 사회 활동으로 보며 하나의 혁명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민족 문학은 ‘단절’의

14)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국어과 교육 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p.154.

15) 권오현, 「초·중등학교에서의 세계문학 교육」, 『해세연구』 제10집, 한국해세학회, 2003.

상태가 아니다. 남북한이 모두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반영한 우리의 문학 작품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서가 밑바탕에 흐르는 토대 위에 우리의 언어로 문학 창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우리 민족의 정서를 토대로, 우리의 언어로 쓰인 북한의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냉전적인 시각을 들이대기보다는 문학적 전통의 계승 차원에서 통일 민족 문학의 성립을 고민해야 한다는 인용문의 지적은 원론적이긴 하지만 최소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1970년대 이후 북한 문학이 주체 사상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고 지금도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작품이 창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청춘송가’ 같은 일상 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과서도 있다. 이 교과서는 남한에도 소개되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대중가요 ‘휘파람’ — 북한의 대표적인 서사시 『백두산』을 창작한 시인 조기천의 동명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 이 남북한 문학의 접점을 제시한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문학에 대한 불편부당한 이해를 보여준다.¹⁷⁾

우리는 아직 분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또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남한의 문학을 중심으로 공부했지만, 이제 시야를 넓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할 문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문학의 범위를 넓혀 이해하는 문제이다. 북한에도 엄연히 문학이 존재하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도 한국어를 잃지 않고 그들의 언어·문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북한 문학, 재외 국민 문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¹⁸⁾

이 교과서는 이어서 북한의 문학뿐 아니라 재외 국민 문학에 대해서

16)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 (하)』,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pp.358~359.

17) 김병국·윤여탁·김민수·조용기·최영환, 『문학 (하)』, (주)한국교육미디어, 2003, p.321.

18) 김병국·윤여탁·김민수·조용기·최영환, 위의 책, p321.

도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문학의 범위를 넓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다문화적 관점의 편린을 보이고 있다. 우리 문학을 국내의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에게 가르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순혈주의적 민족 개념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에 대해 다분히 폐쇄적인 시각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어로 쓰인 제일 교포들의 문학 작품처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을 다루었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창작된 문학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¹⁹⁾ 우리 문학의 경계에 대한 고민은 학생들로 하여금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문학 교과서에는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비교적 최근의 작품까지 수록되어 있고, 전문 작가가 아닌 학생이나 비전문인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어 학생들이 ‘문학’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월북 작가 및 좌파 문인의 작품은 물론 조선족 작가나 북한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고, 외국 문학 작품 중 제3세계 작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학생들이 문학 교실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²⁰⁾ 이는 문학 정전에 대한 이론적 탐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문학 작품은 김진주의 「어머

19) 이에 대해 제일교포 에세이스트인 서정식이 모여 — 태어나서 처음으로 익혀 자신의 내부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말 — 와 모국어 —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 즉 모국의 언어 — 를 구별하면서, 모국어인 조선어가 아니라 구식민종주국인 일본어를 모어로 글을 써야 하는 운명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단적으로 표상한다고 적고 있다(서정식,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pp.17~19). 중국 국적의 조선족작가가 조선어로 쓴 작품이나 한국 국적의 제일교포 작가가 일본어로 쓴 작품 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민족 문학의 존재와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변화는 한국인이 한국인의 생활 감정을 한국어로 쓴 것이 한국 문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본다.

20) 박기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내용 분석 연구」, 『문학교육학』 제1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니,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라는 시 한 편이 전부이고, 조선족 작가의 문학 작품은 김철의 「고향의 감나무」와 최룡관의 「아침」 등 시 두 편과 김학철의 소설 「종횡만리」가 전부이다.

나는 보았습니다/ 고난의 나날/ 건설장에서도 개간지에서도/ 사람들의 열
기찬 모습 속에/ 어머니가 비껴있는 것을/ 그 무한한 헌신과 사심 없는 진정
을/ 남모르게 바치고 있는// 진정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나라 위해 충성하
는 자식을 소원하며/ 온 생을/ 깡그리 바치려 태어나신 듯/ 이렇게 이렇게 늙
었습니다// 내 뜨거운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니/ 아, 가득히-/ 온 세계를
꽉 채우며/ 가장 아름답게 가장 거룩하게 보여옵니다/ 허나 어머니 그 이름
은 사랑이라고/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진주, 「어머니,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 부분.²¹⁾

이 시는 현행 문학 교과서에 유일하게 실려 있는 북한시로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민성과 노동계급성, 그리고 당성을
바탕으로 인민의 자주성과 애국주의적 내용이 기본 주제가 되고 있는”²²⁾
시는 아니다. “무한한 헌신과 사심 없는 진정”으로 자식에게 헌신하는 어
머니의 이미지는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닌다. 시적 화자는 건설장이나 개
간지에서의 노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거나 충성의 대상이 되는 ‘나
라’의 교시(敎示)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건 누구에게든 깃들여
있는 늙으신 어머니의 사랑을 곱새기고 있다. ‘건설장’이나 ‘열기찬’을 제
외하면 어휘 수준에서도 학습자들이 낯설어 할 만한 요소가 없어서, 학습
자들이 북한 문단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선입견을 성찰적으로 점검해 보
도록 하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시에 대해 교과서 집필자들이 제시한 활동은 “우리에게 익숙한 남
한 문학의 관점에서 이 작품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문학도 “당성과 투쟁성을 강조하여 문학의 보편적인 서정성

21) 김창원·권오현·신재홍·장동찬, 『문학(하)』, 민중서림, 2003, p.369.

22) 박주택, 「1980년대 이후 북한문학의 흐름 : 주체의 시, 서정의 시를 중심으로」, 김중희
엮음,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p.97.

을 무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문학 원리와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한다. 이는 문학 작품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시도에 앞서 북한 문학은 어떠한 것이라고 재단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북한 문학을 포용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조선족 문학 작품을 수록한 교과서의 경우에도 해당 문학 작품과 우리 문학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낯섦’ 속에서도 문학의 한민족의 문학적 전통에서 보편적 요소를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문학을 보편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북한 사회의 특수성 속에서 탄생한 북한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남북한 문학에 존재하는 이질성의 부분을 괄호 치게 되면 문학 작품들을 선전·선동과 대중에 대한 교양 교육의 도구로서 파악하는 북한의 문학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북한 내부에서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취향에 맞는 작품들만이 교과서의 제재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7년 문학과지성사에서 간행한 한국문학선집의 북한시 선정을 담당했던 오성호는, 작품 선정 기준으로 (1) 북한 내부에서의 평가, (2) 남한 독자들의 정서, (3) 작품의 성취도를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아무리 북한 체제와 시를 이해하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독자라도 노골적인 개인 숭배 경향을 보여주는 수령숭기문학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한 독자들이 거부감을 가질 만한, 혹은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북한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고착시키는 역작용을 할 수 있는 작품은 가급적 배제”했다고 밝히고 있다.²³⁾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찬양한 시를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북한시를 왜곡할 가능성보다는 그런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남한의 독자들이 북한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심화되는 것이 더 우려할 만한 일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오성호, 「북한 현대시 개관」, 신형기·오성호·이선미 엮음,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선집 1900~2000 : 북한문학』, 문학과지성사, 2007, pp.1154~1155.

끝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북한 문학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도 북한 문학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항목은 없으나 아래의 항목을 통해 새롭게 개발될 문학 교과서에서 북한 문학이나 그 외의 소수자 문학이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4) 문학과 삶

(나) 문학과 공동체

- ① 문학을 통하여 사회, 민족, 역사, 자연 등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가진다.
- ② 문학을 통하여 양성 평등, 사회적 소수자, 생태, 미래 사회 등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²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과 달리 총론은 물론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등 교과별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다문화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²⁵⁾ 제7차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위의 내용은 다수자를 대상으로 한 소수자 이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라는 용어가 자칫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로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닌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연대 의식’, ‘공유’, ‘소통’ 등의 용어를 통해 문학교육이 주류 문화가 이끄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간의 차이를 민주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4)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7-79호 :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2007, p.119.

25)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과서에도 반영되어서 예컨대 2007년 3월 발행한 5·6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혼혈아와 입양아의 문제가 예제로 실려 있다. 양영자, 앞의 논문, pp.70~71.

IV. 북한 서정시의 다문화적 이해

1. 북한 시사의 전개와 서정시의 흐름

연구자들은 해방 이후 북한 시사를 대략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오성호는 해방기와 한국전쟁기, 전후복구기, 천리마운동기, 주체시기²⁶⁾로, 홍용희는 평화적 민주건설 시기, 조국해방전쟁 시기, 전후복구건설 및 천리마운동 시기, 주체사상 시기, 김일성·김정일 통치 시기, 김정일 통치 시기²⁷⁾로 나누어 북한 시사를 고찰한 바 있다. 당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문예정책에 따라 북한 시단의 창작 경향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 구분은 북한에서 기술된 문학사의 시기 구분과도 거의 유사하다.

해방기의 북한 문단에서는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시와 토지개혁을 찬양하는 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시 등이 창작되었다. 특히 조국 해방의 기원을 밝히고 북한 건국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김일성을 해방의 주체로 제시하는 시들이 많이 쓰였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다룬 서사시 『백두산』이 쓰인 것이 1947년이였다. 한국전쟁 — 북한식 표현으로라면 조국해방전쟁 — 시기의 북한시는 인민군의 애국심과 영웅성을 묘사하고 후방 인민들이 그들을 희생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유대와 단결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나라 용감한/ 빨치산 청년/ 그가 몇 날 전의 포위전에/ 앞장서 나아가다 쓰러질 때/ 마지막 부른 목소리/ “김일성 장군이시여/ 저는 끝까지 승리 속에 전진합니다……”// …… <중략> …… // 나의 따바리총! 가자/ 대구 전주를 거쳐/ 여수 목포 부산으로/ 아니 제주도 끝까지/ 가자, 나의 따바리총!”이라고 적

26) 신형기·오성호·이선미 엮음, 앞의 책.

27) 홍용희, 『해방 이후 북한 시의 역사적 고찰』, 김종희 엮음, 『북한문학의 이해 2』, 청동거울, 2002.

고 있는 안용만의 「나의 따바리춤」은 전쟁의 승리를 낙관하면서 인민군의 영웅적 모습을 그린 이 시기 북한시의 대표작이다.

전후북구기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의 결과 폐허가 된 국토를 회복하고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 과정의 역동적인 현장을 그려낸 이용악의 「평양관개시초」 연작이 이 시기의 대표작이며,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해 삽과 망치를 들기보다는 책상머리에서 “토론만 하는 사람 ‘토론꾼’”을 풍자한 박성석의 「토론만 하는 사람」도 당시 북한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충청북도 진천군 출신으로 해방 공간에서 월북을 택한 시인 조벽암은 이 시기에 「삼각산이 보인다」, 「서운한 종점」, 「가로막힌 림진강」 등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은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오성호는, 전후북구 과정에서 농촌의 협동경제가 생산력의 신장을 가져온 결과 농촌 생활이 여유로워지는 한편으로 1956년 열린 제2차 조선작가회의에서 도식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북한 시단에서 한 동안 농민들의 삶을 그린 향토적 서정시가 다수 창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시기 창작된 김순석의 작품들에 대해 오성호는 북한 문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극찬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작 「마지막 오솔길」²⁸⁾에 대한 남북한 연구자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마지막 오솔길」에는, 농촌에 트랙터가 들어오고 새로 넓은 길을 내면서 익숙했던 고향의 오솔길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시적 화자가 느끼는 애틋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남한의 독자에게도 근대화의 풍경 속에서 어린 시절 웃고 울던 추억을 함께 했던 오솔길에 대한 추억을 추체험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어서, 김재용은 이 시가 북한 문학 특유의 도식성에서

28) 잘 가거라 마지막 오솔길……/ 네 위에 오래 서렸던 한숨같이/ 두 줄기 끝없는 달구지 자국도/ 자국에 자라 우거진 근새 풀송구리도// 허술하고 초라하고 인격이 없어/ 눈에도 띄우지 않은/ 고향의 좁은 오솔길/ 마지막으로 오래 나를 걸구어달라.// …… <중략> …… // 넓은 길은 깔린다……/ 전선줄이 노래하며 뻗는다/ 토라뜰의 가벼운 동음……/ 땅을 흔든다. 가슴을 흔든다.// 잘 가거라 마지막 오솔길/ 천년 너와 함께 있던 가난도 슬픔도// 뼈적이던 달구지 소리도/ 영원히 영원히……

김순석, 「마지막 오솔길」 전문.

벗어나 개인의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며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작품이 발표된 당대 북한의 한 평론가는 이 시에 드러난 정서가 “소부르조아적 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²⁹⁾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는 현장의 역동성이나 노동자들이 따라야 할 영웅의 모습, 또는 사상성을 드러내는 대신 과도하게 감상에 젖어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작가들이 그려야 할 세계의 모습도, 그 세계를 그리는데 동원하는 미학적인 장치에 대한 이해도 다르지만 작품을 읽는 남북한 독자들의 기대 지평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문단에는, 사라지는 오솔길과 함께 “가난도/ 슬픔도” 영원히 마지막이라는 대목에서 이 시가 변화될 농촌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으며 시적 화자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상적 애수를 떨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공존한다. 같은 문화권에 속한 독자들 사이에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선입견 없이 읽는다면 남한의 독자들이 이 시에 대해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점이다.

천리마운동기의 북한 사회는 남한보다 앞서 이룩한 경제 성장의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 북한시는 인민 대중에게 천리마 운동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김일성의 자상한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사회주의적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한편으로는 남한에 대한 우월감을 토대로 남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시, 통일의 당위성과 국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들이 창작되었다. 이어 주체시기에 이르면 북한 문단은 김일성은 물론 후계자 김정일을 포함해 혁명 가계를 우상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핵심미학으로 하는 주체문예이론이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관철되게 된다.

198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문예정책을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주도했으

29) 남북한 두 평론가의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는 김경숙, 「북한 시의 형성과 전개 과정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2, pp.61~62를 참조할 것.

며 도식성을 비판하면서 생산 현장의 ‘숨은 영웅’들을 형상화하는 데 관심을 보이게 된다. 또 주체시기와는 다르게 평범한 인물들의 생활 서정을 담은 시들도 눈에 띈다. 1992년 발표된 『주체문학론』에는 “시문학의 서정을 높이자면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시의 서정은 시인 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장이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시기에도 고난의 행군 정신, 붉은기 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한 문학 작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적 농촌의 현실을 비롯한 일상적 체험을 담은 시, 고향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에의 열망을 담은 시, 남녀의 애정을 다룬 시, 산수시 등 서정성이 짙은 작품들이 다양하게 창작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북한 시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당의 교시에 따라 혁명가계를 우상화하고 사회주의 체제 하의 삶의 모습을 미화하는 한편 남한 현실을 왜곡해서 전하고 비판하는 시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식적이고 교조적인 문학 창작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시인 개인의 내밀한 서정과 개성을 표현한 시들이 존재한다. 요컨대 남북한 이데올로기와 문학관의 이질성 때문에 남한의 독자들로서는 읽기조차 거북한 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성과 예술성 사이의 긴장과 일탈이 북한의 문단에도 존재해 왔다. 학습자들에게 북한시를 읽을 기회를 주지 않고 북한 문학은 당의 문예정책에 따라 획일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2. 1990년대 북한 서정시의 실제

1) 일상의 시화를 통한 생활 서정의 확보

1990년대 북한시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향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순정과 일상의 정겨운 모습들을 서정적으로 그리는 작품들이 많다는 것이다. 작품 속에 수령이나 당, 조국과 같은 관념적 소재가 아니라 일상

의 구체적 경험이 담겨 있고, 그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감정들이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북한시가 보여주는 일상의 모습은 우리의 그것과 닮은 듯 다르다. 「어머니,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에서 뜨거운 노동의 현장에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지는 장면이 언뜻 낯설다는 느낌을 주듯, 생활 서정을 담은 북한시는 남녀 간의 사랑, 세대 간의 차이, 삶의 자세에 대한 통찰과 같이 익숙한 주제를 담은 듯하면서도 북한 사람들의 생활 풍경은 우리의 그것과 같지 않다.

하많은 사람에/ 말은 안 해도/ 정가는 곳은/ 따로 있는지/ 경쟁을 걸고도/
도와만 주교파// 그이사 이런 심정/ 아시는지 마는지/ 그래도 애정이란/ 건잡
을 수 없어서/ 달랠수록 내닫는 걸/ 어이합니까?// 정들인 일터에서/ 헤어지
던 날/ 가슴에 출렁대는/ 말을 못 하고/ 떠나와선 은근히/ 그립답니다.

-박아지, 「그립답니다」(1958) 부분.

북한시가 전반적으로 교조적 편향을 보일 때에도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을 담은 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8년 작인 위의 시에는 공사 현장에 참가했던 한 여성 노동자가 그곳에서 만난 ‘그이’에게 느낀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 있다. 공사 현장의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오직 한 사람 ‘그이’여서 “경쟁을 걸고도/ 도와만 주교”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여느 사랑에 빠진 이들이 그렇듯 그녀는 이미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말을 못하고/ 떠나”오고선 그이에 대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다. 이성에 대해 사랑을 느끼는 그녀의 떨리는 마음과 그리움은 보편적인 정서이지만 “경쟁을 걸고도/ 도와만 주교”픈 그녀의 마음은 협동 노동의 장면을 떠올려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남한의 독자가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회주의 조국의 건설에 열렬히 헌신하도록 하는 동력으로 전이되거나 신성한 노동의 즐거움을 그려내는 매개가 되는 것은 북한시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풀잎에 맺힌/ 이슬 내리는 소리도 들릴 듯/ 고요한 새벽// 다만 벌한끝 어
 디선가/ 가까이 들리다가는 멀어지고/ 멀어졌다가는 다시 들리는/ 트락틀소
 리// 그 소리/ 단잠 든 마을/ 집집을 에도네// 동음소리에 심장의 말을 담아/
 지긋게도 처녀를 찾네/ -어서 나오렴/ 내 사랑 내 정든 사랑// 그만에야 잠
 을 깬 처녀/ 서둘러 집을 나서네/ 그 총각과 남몰래 만나던/ 바들방천과 비길
 수 없는/ 아름번 행복이 기다리는 논벌을 향해// 그 총각이 전조등불빛으로
 불러온/ 그 새벽빛 보고싶어/ 그 총각이 교루어 놓은 논벌에/ 모내는 기계의
 동음/ 선참으로 울리고 싶어……

-서진명, 「새벽」(1990) 전문.

1990년대 북한 서정시에도 남녀 간의 사랑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이 시에서 처녀의 총각에 대한 사랑은 새벽녘 트랙터 소리에 단잠을 깨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터로 달려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정든 사랑”이 일터에서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남한 독자에게 그리 익숙한 풍경은 아니다. 1980년대 노동시에서 노동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일상과 서정을 그린 유사한 시편들을 찾을 수 있으나 대중적인 지지를 받은 작품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처녀는 “그 총각이 전조등불빛으로 불러온” 새벽빛이 보고 싶어 단숨에 집을 나서 총각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그곳은 또한 일터이기도 하다. “선참으로 울리”겠다는 표현은 북한시에 종종 등장하는데 우리에게서는 표현 자체도 그 속에 담긴 정서도 익숙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어 달려가는 곳이 고된 노동의 현장이라는 것은 낯설더라도 새벽녘 사랑하는 이의 흔적을 쫓아 잠을 깨고 조금이라도 먼저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시적 화자의 설렘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감 가능한 감정이다.

같은 시기 북한시 중에는 시인의 창작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거나 바느질이라는 일상적 행위 속에서 삶의 자세를 다지는 작품도 있다.

시의 우물은 깊고깊어/ 파고 또 파다 기가 진한 밤/ 사색의 정대를 놓고/
 에-라 그만 쉬려는데/ 똑 똑 똑 누가 날 불러/ 문열고 로대에 나서니/ 오,
 지칠 줄 모르는 락수물이/ 란간아래 굳은 돌 뚫고 있네

-안정기, 「락수물 소리」(1993) 전문.

실을 켜려 바늘을 손에 드니/ 세상 떠난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밝은 전
등아래서도 실을 못 꿰어/ “애야 이걸”/ 바늘실을 나에게 주시던 어머니// 내
오늘 바늘 쥐고 어린 딸을 찾는다/ “애야 이걸”/ 어머니가 하던 그말을 내가
한다/ 인생이 실처럼 긴 줄을 알았더니/ 지나보면 바늘처럼 짧은 것이 아닌가

-문동식, 「바늘」(1995) 부분.

「락수물 소리」에는 시가 써지지 않아 잠자리에 들려던 시인의 눈에
들어온 짧은 풍경이 그려져 있다. 창작의 고통에는 국경이 없는 것이어서
‘정대’, ‘로대’처럼 낯선 어휘에도 불구하고 새벽녘 펜을 놓고 머리를 식
히려 마루의 난간에 선 시인의 모습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다. 시인은 낙
숫물이 “지칠 줄 모르”고 난간 아래 굳은돌을 뚫듯, 쉽 없이 “과고 또 과”
면 깊고 깊은 “시의 우물”에도 결국은 물이 솟아나리라는 깨달음에 도달
한다. 바느질을 하다 문득 인생은 짧고 어머니에게서 나에게로, 다시 딸에
게로 이어지는 것임을 「바늘」은 이야기한다.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해 딸에
게 실을 꿰어 달라 부탁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익숙한 장면으로,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의 의미를 담아내는 시인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북
한에서는 ‘교훈시’로 소개되었으며, 구체적인 경험을 먼저 제시하고 그로
부터 삶의 자세를 도출해 내는 시상의 전개는 「차마설」과 같은 고전에서
작가가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고의 과정과 흡사하다.

새집을 받았다고/ 빨리 오시라고/ 몇 번이고 재촉한 딸의 편지에/ 빨리 간
다는 것이 오늘에야 찾아온 할머니/ 옛날부터 새집들이에는 불이 선참이라
며/ 딸앞에 내놓는 《금강》 성냥// 아니 성냥은 해서 뭘할까/ 너무 어이없
어 딸은 웃어도/ 산골도 북방의 산골에서// 전기로 밥을 짓고/ 전기로 방을
덥히는줄/ 할머니 어이 할라

-김만영, 「북방의 새 모습 (2)」(1999) 부분.

전기가 들어오는 줄 모르고 이사 간 딸네에 들르면서 성냥을 사온 어
머니도 그 성냥을 두고 밍지 않은 편잔을 주는 딸도 정겨운 일상의 한 단
면이다. 그러나 문화의 차이는 이 시에도 나타나고 있어서, 남한의 독자에

게 북한 사람들의 삶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사 간 집에 성냥과 초를 사 들고 가던 풍습은 남한에서는 이미 옛날 일이 되었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풍습이 차츰 사라져 가는 모양이다. 1970년대 도시화·근대화를 경험하는 우리 사회의 풍경을 보는 것 같은 이 시를 통해 1990년대 후반의 북한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³⁰⁾

2) 분단의 고통과 통일에 대한 의지의 표현

남북 분단 문제는 북한시의 오랜 소재였었다. 한국 전쟁 시기에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으로, 전쟁 이후에는 애국심과 민족애를 고취하는 동기로, 월북시인의 애절한 향수로 변주되어 온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의지’는 북한시의 중요한 형상화 대상이었다.

여기가 오늘의 종점이라다/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나는 또 집을 내려야 하나?// 한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워진 이곳이/ 무척 반갑기는 하다마는// 다시 천근 추에 매어 달린 듯/ 흠에 돌처럼 우뚝 서/ 남쪽 하늘을 바라본다
-조벽암, 「서운한 종점」(1956) 부분.

이 시에는 고향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종점’에서 내릴 수밖에 없어 멀리 남쪽 하늘만 바라보는 시인의 서글픈 심정이 잘 그려져 있다. “한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워진” 곳에서나마 고향을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는 그의 모습은 임진강에 서서 멀리 북의 고향을 그려보는 실향민들의 모습과 자연스레 겹쳐진다. 시인은 끝내 고향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다. 남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

30) 2006년 10월 『조선문학』에 실린 리동수의 「시는 시로 되어야 한다」는 평론에는 “시는 주관적 체험과 느낌의 산물이다. 서정적 주인공의 내적인 정서심리상태, 주관적 느낌에서 일어나는 인정심리 적굴곡상태가 사실에 대한 열거나 서술식묘사료써가 아니라 주관적가정토로와 정서적호소로 충만될 때라야 서정미가 풍부히 차남치게 된다.”라고 적혀 있다. 이는 최근 북한 시단이 당이 제안하는 선군문학론의 이면에서 시의 정수를 본격적인 서정시에서 찾으려는 비평적·창작적 경향을 확인시켜 준다.

도적 지원이 이루어져 예전보다는 나아진 상황이지만 실함과 이산의 아픔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외로이 홀로 서있는 그 모습/ 어쩐지 내겐 생각되누나/ 이 아들을 기다려
기다려/ 긴긴세월 애태우며 살아오셨을/ 남녘의 내 어머니처럼// 포연이 하
늘을 뒤덮던 그 밤/ 나무가의 버드나무밑에서/ 북으로 떠나는 내 어깨우에/
작은 보따리 메워주며/ 손저어 바래주던 어머니

-신지락, 「어머니의 모습」(1995) 부분.

북으로 떠나는 아들의 어깨에 “작은 보따리/ 메워주며/ 손저어 바래주던 어머니”는 “한생을 기다리시며” 사셨을 것이고 아들은 “운명하면서도 눈감지 못했”을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리움에 목이 멘다. 북에 어머니를 남기고 떠나온 남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남과 북의 시인들에게 그들의 아픔은 지속적으로 창작의 계기가 될 것이고,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 의지를 담은 시들이 쓰일 것이다. 북한 정권이 통일을 외치는 것은 체제의 유지와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평범한 북한 사람들에게 통일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 이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이러한 시들은 이야기한다. 이러한 시는 민족 통일에 대한 지향을 담아낸 남한의 시³¹⁾를 연상시키면서 차이 속에 존재하는 남·북한시의 정서적·형식적 유사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3) 아름다운 자연 풍경의 묘사

북한시에서 자연의 묘사는 국토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의 내면에 연루된 풍경을 그리는 것이

31) 구인환·구자송·정충권·임경순·하회정·황동원, 『문학(하)』, (주)교학사, 2003에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는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는 교은의 「성묘」와 같은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일상적이지만, 북한시에서 자연은 조국애를 추동하고 남과 북의 통일에의 의지를 다지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자연을 다룬 시는 이념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어서 북한 시사에서 꾸준히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의 풍경시는 “자연은 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체적 문예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의 보조적 배경으로 삼”았던 것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³²⁾ 이념이 투영된 자연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지켜보는 시인의 감흥을 형상화한 시가 창작되고 있는 것이다.

(가) 바다 멀리 호도의 등어리에/ 한순간 환한 빛이 었혀 있더니,/ 하늘과 바다를 가득 채우며/ 달이 뜬다, 영흥만에 달이 뜬다.// 번들거리는 물결을 차며/ 물새들 고추 달을 향해 나는구나,/ 검푸른 바위 그늘 속에서/ 흰 돛 소리없이 미끄러져 나오누나.// 아름다워라, 동해의 저녁이여, 달빛 아래 철썩이는 금물결이여, 하늘의 별이 바다 속에 잠기고/ 바다 속의 진주 하늘에 미소 짓는 시의 나라, 노래의 바다여!

-김철, 「영흥만에 달이 뜬다」(1957) 부분.

(나) 오는 봄이 더딘듯/ 눈덮인 절벽가에 활짝 피어/ 백두의 노을빛을 잎에 머금음/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아라// 그 타는 빛 말 못할 행복이런듯/ 티 한점 앓을세라/ 바람도 백두의 바람에/ 꽃잎을 씻도 또 씻네// …… <중략> ……// 아 어제도 오늘도/ 때없이 때없이/ 백두의 눈비속에/ 기꺼이 서보는 내마음아!

-윤병규, 「백두산의 진달래」(『조선문학』 1990. 3) 부분.

(다) 아쉬워라/ 차마 발걸음 떼기가/ 비로봉의 폭포소리// 구룡연의 장쾌한 노래소리/ 천하를 울리며/ 이 가슴을 그냥 내리쬔네// 신선의 날개웃인양/ 끝마다 내리는 환안개/ 정든님의 애무인양/ 내 몸을 감싸고 도네

-리정택, 「금강산을 떠나며」(『조선문학』 1991. 8) 부분.

32) 박주택, 「북한 산수시의 전개 양상」, 김중희 엮음, 『북한문학의 이해 2』, 청동거울, 2002.

「영흥만에 달이 뜬다」에서는 화자가 영흥만—강원도 동해에 있는 만으로 원산만이라고도 한다—에 달이 떠오르는 풍경을 보면서 느낀 감흥을 그리고 있다. 바다 멀리 떠오르는 빛과 달을 향해 곧추 날아오르는 물새의 모습, 달빛 아래 일렁거리는 동해 바다의 물결, 하늘의 별들이 어우러지면서 빚어내는 이미지는 달이 떠오르는 밤바다의 정경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면서 독자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분단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해 바다의 월출은 남한의 독자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추체험할 수 있는 풍경이어서 독자의 머릿속에 쉽게 그려진다. 풍경을 그려내는 언어의 미감과 사람살이와는 달리 탈이념적인 자연 풍경이 주는 감동은 독자의 지적·심리적 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서정을 담은 풍경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 위에서 부름 없는 생활을 향유하는 인민의 생활상을 향유하는 인민의 행복상을 그려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³³⁾다는 지적은 풍경시의 생산과 수용에 있어서도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나)와 (다)는 1990년대에 발표된 시로 『조선문학』에 등장하는 풍경시, 산수연시 등의 소장르를 대표하는 작품이다.³⁴⁾ 북한시에서 ‘백두산’이나 ‘진달래’는 그러한 소재가 쓰이는 것만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투성을 떠나서 보면 (나) 시에서도 자연과 대면한 시적 화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김일정의 항일 무장 투쟁을 연상시키는 백두산에서 시인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진달래꽃을 응시하고 있다. 노을빛을 받은 진달래는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작은 티끌조차 깨끗이 씻기어 시인 자신의 내면을 마음을 경건하게 바라보도록 이끈다. (다) 시는 「관동별곡」을 연상시키는 익숙한 시어로 금강산의 풍경을 묘사한다. 2음보와 3음보가 교차하는 시의 음률 또한 고전 시가의 전통을 떠올리게 하

33) 박주택, 앞의 글, pp.174~175.

34) 『조선문학』에는 1986년 최동호가 사용했던 산수시라는 용어도 등장하며, 남한 연구자 중에는 자연 풍경을 그린 일련의 북한시들을 산수시라는 용어로 통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산수시는 남한의 산수시와 달리 시적 화자의 내적 취향을 드러내지 않고 풍경을 외면화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산수시가 서로 다르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조선문학』에서 쓴 ‘풍경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는데, 시인은 자연의 풍광을 운율감 있는 언어를 통해 유려하게 읊고 있다. 남한에서는 이러한 풍경시들이 개인의 내면을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하는 데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지만 북한 문단에서는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거기에 비친 인간 세계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주체문예이론을 충족시키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3. 북한 서정시의 다문화 교육적 의의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 서정시는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북한 문학과 문화에 대한 다문화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북한 문학을 동질성 회복의 논리로만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자유로운 서정을 담은 우리의 시가 당의 선정·선동의 도구로 전락한 북한시보다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는 인식을 떨치기 힘들다. 남과 북의 이질적인 문학이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의 문학적 성향을 부정하거나 ‘회복’해야 할 ‘민족의 전통적 정서’를 찾아 분단 이후 현대시가 이룬 시적 성취들을 평가절하하게 될 개연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북한의 문학을 알고 그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동질성 회복에서 차이의 이해로 인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불확실한 보편성을 가정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비판적 거리두기의 균형을 잡으면서 북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문학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 문학에 대한 다문화적 이해는 한국 사회의 타자로 존재하는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다수자에 대해 행하는 소수자 문화의 교육 차원에서 북한 문학의 교육은 타자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인종적·민족적 소수자들의 문화에 대한 교육

이 다수자에 대한 다문화 교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문화교육에서 타자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적 이해로 이어질 때 의의를 갖는다. 소수자 문화에 대한 교육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다수자 문화의 경계 바깥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와서 통섭하고 있음을 알고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존중하고 존중 받고 있음을 느끼는 계기를 제공한다. 다문화적 정체성의 개념에 따르면 “문화적 애착심이 부재하는 시민보다는 소속 공동체의 문화, 언어, 가치에 명료하고 사려 깊은 애착심을 지니고 있는 시민이 국가에 대한 반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³⁵⁾고 한다. 이는 북한시의 수용이 소수자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새터민들에게 북한시의 교육은 그들 자신이 속해 있었던 문화가 존중 받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이전의 자신을 모두 부정해야 할 것 같고 한국 사회의 이등 시민이거나 국외자처럼 느끼는 정체성 혼란이나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자아 존중감 없이 소수자들이 사회에 흡수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치적·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밖에도 다문화 교육의 맥락에서는 다소 벗어난 이야기여서 앞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문학교육의 맥락에서 북한 서정시는 남북한 시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1930년대 시단에서 중요한 시적 요소였던 북방 정서의 분단 후 흐름을 확인하도록 한다. 백석, 이용악 등 1930년대 우리 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인들 중에는 북한에서 숙청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작을 해 나간 이들이 있다. 이들의 시는 시인 개인의 시적 편력을 단절이 아닌 연속성 속에서 살펴보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시사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풍경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북한시는 우리 고전 시가 장르의 정서와 형식을 의식적으로 계승하고 있어서 학습자로 하여금 우리 고전을

35) James A. Banks, 모경환 외 역, 앞의 책, p.38.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민족적 형식에 대한 강조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이다. 1950년대 북한 문단은 “주체적인 민족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선조들이 남겨놓은 민족 문화유산 가운데서 조선 사람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것들을 창조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³⁶⁾ 1990년대의 풍경시에서 그러한 전제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3음보의 반복적 사용이나 감탄사와 감탄형 종결어미의 빈번한 사용, 전통적 정감이 느껴지는 시어의 사용 등³⁷⁾은 우리 시사에서 자연 풍경을 다룬 시편들의 역사적 연속성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요컨대 풍경시는 남한 독자에게 고전 시가와와의 연속성 속에서 자연과 전통을 바라보는 북한시의 시선을 경험하게 한다는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V. 맺으며—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상에서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문학 교육의 북한시 수용 문제를 짚어보고, 북한 서정시의 특성과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지금까지 소략하게 다루었거나 작품에 대한 직접 경험은 배제하고 몇 줄의 비평적 서술을 통해서만 북한 문학을 접해 왔던 학생들에게 북한 서정시를 가르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기존의 정전 논의에서도 북한시를 비롯해 소수자 문학의 교육적 수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는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의 문화를 다문화적으로 끌어안기 위해 문학교육이 고민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36) 김경숙, 앞의 논문, p.39.

37) 박주택, 앞의 글, p.173.

분단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교육은 ‘성찰적 민족주의’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설계되어야 한다고 볼 때, 북한 문학을 읽을 기회를 주는 것이 동질성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³⁸⁾이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북한 문학이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이 연구의 관점이, 다문화 교육이 흔히 직면하는 바와 같이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정치적 역학 관계나 우리 교육계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 문학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여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으로 비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연구의 취지가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서정시는 북한 시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주류가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1990년대 이후의 서정시를 주로 살펴보았지만, 북한 시사에서 당의 정치적 요구와 작가 개인의 표현의 욕구 사이에서 후자에 기우는 시들이 지속적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북한 서정시는 그 자체로 시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뚜렷한 이질성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두고 최소한의 차이를 택한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현행 문학 교과서가 보여주듯이 북한 문학의 이질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상호존중과 관용을 의도하는 교육에서라면 북한의 서정시가 가장 적절한 교육적 매개라고 본다.*

38) 김대행,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pp.305~306.

* 본 논문은 2009. 2. 25. 투고되었으며, 2009. 3. 3. 심사가 시작되어 2009. 3.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자료>

18종 『문학 (하)』 교과서.

신형기 · 오성호 · 이선미 엮음,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선집 1900~2000 : 북한문학』,
문학과지성사, 2007.

<논문 및 저서>

권오현(2003), 「초·중등학교에서의 세계문학 교육 : 현황 및 제안」, 『혜세연구』 제10
집, 한국혜세학회.

김경숙(2002), 「북한 시의 형성과 전개 과정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김남희(2007),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김대행(2000), 『문학교육 뜰짜기』, 역락.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김미혜(2005), 「사회·문화적 문해력 신장을 위한 방언의 교육 내용 연구」, 『선청어문』
제33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김복영(2008), 「다문화 시대의 배려교육과정 : 사회적 소수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
육학회 2008년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초등교육학회.

김종희 엮음(1999),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김종희 엮음(2002), 『북한문학의 이해 2』, 청동거울.

박순선(2005), 「1990년대 북한의 서정시 전개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6집, 현
대문학이론학회.

박승화(2005), 「북한시의 서정과 개성 문제」, 『우리말글』 제35집, 우리말글학회.

박영민 · 최숙기(2006),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과서 단원 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
문교육』 제3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심영택(2000), 「통일 대비 국어 교육 연구」, 『논문집』 제37호, 청주교육대학교.

양영자(2008),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이화여대
박사.

오성호(2006), 「전후 복구건설기의 북한시 연구」, 『배달말』 제39집, 배달말학회.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윤여탁(2008), 「다문화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 : 현실과 방법론」, 『국어교육연구』 제
2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이성찬(2006), 「『주체문학론』 이후의 북한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19집, 한민족
문화학회.

- 이영미(2007), 「북한 문학교육의 동향 고찰」, 『문학교육학』 제22집, 한국문학교육학회.
- 장문강(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 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19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장인실(2006),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 정상준(2001),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미국학』 제24집,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최 현(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황규호 · 양영자(2008), 「한국 다문화교육의 교육내용 쟁점 분석」, 『한국초등교육학회 2008년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초등교육학회.
- Banks, James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E, 모경환 외 역,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 Bernheimer, Charles ed.(1995), *Comparative literature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Baltimore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ouber · Martin(2001), “Ich und Du”, *Die Schriften über das dialogische Prinzip*, 표재명 옮김, 『나와 너』, 문예출판사.

<초록>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본 북한 서정시와 문학교육

김미혜

다문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이지만, 국내의 다문화 교육 논의는 주로 인종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에 치우쳐 있다. 인종과 민족만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한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의 문제도 다문화 교육이 포괄해야 한다. 교육의 대상 또한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 전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속한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함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이 연구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북한 서정시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문화 교육과 문학교육의 접점에서 북한의 서정시를 고찰해 보았다. 그동안 우리 문학교육은 학생들에게 북한의 문학 작품을 접할 기회를 주기보다는 북한 문학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개인의 일상에서 우리나는 소박한 서정을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고 있다. 이들 작품을 다양한 생활 체험에서 우리나는 서정을 확보한 작품, 분단의 고통과 통일에의 열망을 표현하는 작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강렬한 국토애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작품들은 북한 문학 전체에서는 비주류이지만, 남한의 학습자에게 ‘차이’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의 시작점으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핵심어】 다문화주의, 다문화 교육, 문학교육, 북한 문학, 북한 서정시, 차이, 관용

<Abstract>

North Korean Lyric Poetry and Literary Education Seen from
the Viewpoi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Kim, Mi-hye

The most important virtu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re tolerance and respect for diversity, but discussion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leans towar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for ethnic minoriti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explain multicultural phenomena in Korean society with races and nations alon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must comprehend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various minority groups in Korean society. The subjects of education also need to include all the members of multicultural society. It is because multicultural education is for realizing democracy that implements society respecting the dignity of individuals in various minority groups and leading a human life.

From this viewpoint, we considered that North Korean lyric poetry would be a meaningful material for finding directio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o be pursued by our education, and examined North Korean lyric poems at the contact point betwee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literary education. Until now, our literary education has assumed a negative view toward the ideological inclinat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rather than giving student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North Korean literature.

In North Korea, however, numerous poems have been written that express personal naïve feelings in individuals' daily life since the 1990s. These works can be divided into those expressing emotions permeated

with various daily experiences, those expressing the pains of division and fervent desire for reunification, and those revealing passionate love for the national land by describing beautiful natural scenes. Although these poems are non mainstream in North Korean literature, they may be meaningful as a starting poi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so that South Korean learners may embrace 'differences'.

【Key word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education, literary education, North Korean literature, North Korean lyric poetry, difference, tolerance